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특급 좌완 유창식을 앞세운 광주일고가 11일 경남고와의 KBS초청 최강전 결승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유창식이 지난 4일 휘문고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교야구 최강 마운드 유창식 있음에…

광주일고 '왕중왕' 오른다

오늘 경남고와 결승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가 청룡기를 제패한 경남고와 고교야구 '왕중왕'을 다툰다.

호남 야구의 자존심 광주일고가 11일 오후 2시 목동구장에서 경남고와 KBS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 결승을 치른다.

2011년 주말리그 도입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올해 치러진 8개 전국대회의 우승팀이 참가해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지난 3월 통산 4번째로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은 광주일고는 최강전 준결승에서 미추홀기 챔피언 제물포고를 7-5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경남고도 청룡기에서만 9번째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 최강전 준결승에서는 무등기 우승팀 천안 북일고를 상대로 5-3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합류했다.

광주일고 마운드에는 좌완 유창식이 버티고 있다. 7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한화 유니폼을 입게된 유창식은 140㎞ 후반대의 빠른 직구와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앞세운 배짱투구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고교 특급 선수로 꼽힌다.

유창식은 타석에서도 수준급 실력을 과시하며 1인 2역을 해내고 있다. 제물포고와의 준결승에서도 3타수1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깔끔한 타격 실력을 보여줬다.

청소년 대표 콤비 허일·백세웅 그리고 2루수 백왕중으로 구성된 철벽 내야진도 광주일고의 우승에 힘을 보탠다. 광주일고 '내야 3인방'은 지난 2011 신인드래프트에서 나란히 롯데의 지명을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남고 마운드에는 삼성과 2억원에 계약을 끝낸 에이스 심창민이 있다. 사이드암 심창민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청룡기에서 4승을 수확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었다.

심창민이 아직 최강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경남고는 화끈한 타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최강전 결승에 올랐다.

이번 경기는 광주일고 신임 사령탑 김선섭 감독의 첫 우승 도전 무대이기도 하다. 김선섭 감독은 인하대로 자리를 옮긴 허세환 감독에 이어 지난 8월 미추홀기 대회 때부터 광주일고를 지휘해 왔다.

고교야구 왕중왕을 놓고 벌이는 호남과 영남의 강호 대결은 오후 2시부터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일골프대항전 첫날부터 '불꽃'

1라운드선 한국 2승 3패

한국 골프 대표팀이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한일프로골프 국가대항전 첫날 2승을 따내며 접전을 펼쳤다.

한국은 1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두 선수가 공을 번갈아치는 포섬 스트로크 방식으로 열린 1라운드에서 필승 카드 김대현(22·하이트)-김대섭(29·삼화저축은행)과 배상문(24·키움증권)-김경태(24·신한금융그룹)가 승리해 승점 2점을 따냈다.

하지만 한국은 이시카와 료와 가타야마 신고 등을 앞세운 일본에 3경기를 내줘 2승3패로 첫날을 마쳤다. 한국과 일본은 대회 둘째날인 11일 두 선수가 각자 공을 쳐 좋은 스코어를 적어내는 포볼 방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첫 승전보는 제1경기로 나선 김대현과 김대섭이 전해왔다.

김대현과 김대섭은 이븐파 72타를 쳐 7오버파 79타를 적어낸 오다 고메이-오다 류이치조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오다 조가 2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고도 네차례나 퍼트를 해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등 퍼트에서 난조를 보인 사이 김대현과 김대섭은 4번홀(파4)과 5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타수차를 벌려 나갔다.

김도훈(21)과 김비오(20·이상 넥슨)는 이븐파 72타를 쳐 마루야마 다이스케와 요쿠 가나메조(2언더파 70타)에 2타차 승리를 내줬지만 다음 조로 나선 배상문과 김경태가 곧바로 만회했다.

배-김조는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3언더파 69타를 쳐 후지타 히로유키와 미야모토 가츠마사(3오버파 75타)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하지만 김형성(30)-강경남(27·삼화저축은행)이 1오버파 73타를 쳐 베테랑 가타야마 신고-이케다 유타(2언더파 70타)에 아깝게 패하면서 첫날의 승기는 일본으로 넘어갔다.

김형성과 강경남은 17번홀까지 일본팀을 1타차로 추격했지만 18번홀(파4)에서 김형성이 티샷을 해저드에 빠뜨리는 바람에 2타를 잃고 말았다.

일본의 에이스 이시카와는 소노다와 짝을 이뤄 4언더파 68타를 합작해 1언더파 71타를 적어낸 이승호(24·토마토저축은행)와 손준업(23)을 제압했다.

/연합뉴스

10일 제주 해비치골프장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한일프로골프 국가대항전 1라운드에서 김대현이 5번홀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달 가볍게 4강

US오픈 테니스 단식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4강에 3년 연속 진출했다.

나달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단식 8강 페르난도 베르다스코(8위·스페인)와 경기에서 3-0(7-5 6-3 6-4)으로 이겼다.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US오픈에서만 정상을 밟지 못했던 나달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이 대회 4강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 결승에는 오른 적이 없다.

이 대회 또 다른 4강은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와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의 대결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 상무 '허정무의 인천' 넘을까

내일 광주서 프로축구 21라운드

광주 상무가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 탈출에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12일 오후 3시1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정규리그 2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상무는 지난 5월23일 이후 11경기째 승전보를 올리지 못하면서 13위까지 떨어졌다. 11위 인천은 지난주 허정무 감독의 K-리그 복귀전에서 부산과 1-1 무승부를 연출하며 간신히 5연패에서 탈출했다.

인천과의 안방전적에서는 상무가 한발 앞서 있다. 역대전적은 6승3무5패로 호각지세지만 상무는 홈에서 5승1무2패를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뒷심부족으로 번번이 승점 챙기기에 실패했던 상무는 김정우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우는 많은 활동량과 노련한 경기운영, 안정된 패스로 중원에 힘을 실어주며 승리 전선에 앞장선다.

공격 전면에는 최성국과 김동현이 나서고 박병규, 장현규는 상무의 뒷마당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홈피 이벤트

KIA타이거즈가 프로야구 공식 라이센스 상품업체 '네포스'와 함께 시즌 종료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27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 : //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네포스'가 판매하는 KIA타이거즈 공식 라이센스 제품 5가지를 맞히면 된다.

90명을 추첨해 최강 KIA상 20명에게 버튼형 유니폼을 증정하고, 타이거즈상 20명에게는 망사형 모자를 리틀타이거즈상 50명에게는 어린이용 모자와 글러브 세트를 각각 증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

생활 게시판

화촉

▲정진락·허영숙씨 장남 지훈군 이석용(광주 동구청 복지지원국장)·이정애씨 장녀 정아양=12일(일) 낮 12시20분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정돈화(광혜교회 목사)·조양숙씨 장남 용준군 손주영·강길자씨 장녀 현진양=11일(토) 오후 1시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부음

▲정순기씨 별세 호준·호철·호일·호웅·호탁·영자·덕임씨 부친상=발인 11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표영팔씨 별세 학선·한군·학균·인자씨 부친상=발인 11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이윤순 님(여/87세)
子/子婦 : 성현모·김만순, 준모·조정옥, 서금례
女 / 婦 : 성성순·오형식
• 호 실 : 201호 • 발 인 : 9월 12일 • 장 지 : 화순남면선영

故 이재천 님(남/26세)
父 : 이기범
母 : 신미자
• 호 실 : 402호 • 발 인 : 9월 11일 • 장 지 : 영락공원

故 최영희 님(여/53세)
子 : 정상인
女 / 婦 : 정진영·최민성
• 호 실 : 401호 • 발 인 : 9월 11일 • 장 지 : 망월묘역

故 남진현 님(남/89세)
子/子婦 : 남형철·이형자, 형민·최현순
女 / 婦 : 남형희·김현철
• 호 실 : 101호 • 발 인 : 9월 12일 • 장 지 :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
금 호 장 례 식 장
☎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 故人:황해련 제:황태현·종현·정련
발인 : 9월11일(토) 10시00분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50-4405
▲이성현·충성씨 부친상 발인 : 9월12일(일) 00시00분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50-4412
▲전재웅·재남·재영씨 부친상 발인 : 9월11일(토) 09시00분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50-4403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